

인권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 올인

전북교육청,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 30일까지 도내 중학교 40곳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에 나섰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도내 지역별 중학교 40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장, 교감 및 학교폭력 담당자, 상담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혐오범죄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에서도 성별 장애, 종교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학교 내 학교폭력 사안 중 혐오표현 관련 현황(2019년) ▲

혐오표현 관련 상담현황(2019년) ▲ 혐오표현 관련 교육(교직원, 학생 등) 현황(2019년) ▲학칙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생활규정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 포함 유무 ▲학교 내 혐오표현 예방 노력 ▲학생의 혐오표현 실태 등이다. 조사 결과는 학교 내 소수자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

관념을 해소하고 혐오표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통해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해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푸른소리창단이 지역의 대표적 어린이중창단으로 섭외돼 국악동요율동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여한다.

전주교대 군산부설초, 진로활동 활발

근대역사동시창작대회 등 참여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임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는 다양한 진로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군산부설초는 최근 '제2회 근대역사 동시창작대회'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2학년 홍재원 학생이 행복한 선물, 월명산이란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4학년 유서립 학생이 '청암산 가는 길'이란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두 작품은 동요로 작곡돼 군산시간여행동요제의 지정곡 활용 및 CD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또 3학년 박지현 학생은 제8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전북예선에 참가해 초등부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지현 학생은 '나의 꿈과 봉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유창한 발표를 선보였으며, 다가오는 12월 전국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한다. 더불어 군산부설초 푸른소리창단이 지역의 대표적 어린이중창단으로 섭외돼 국악동요율동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여한다. 이 촬영은 국립국악원 '국악동요 율동 공모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는 국립국악원과 KBS방송총국 '누가 누가 잘하나'의 협업으로 제작돼 유튜브 채널 및 학교교육 현장에 소개된다. /정은성 기자

온다라 지역 인문학센터 내달 30일까지 인문주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국 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거리두기의 시대, 함께하는 가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인문주간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지난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최명희문학관을 비롯해 정음북부노인복지관, 노송천복지관 등 전주시와 정음시 일대에서 진행된다. 주요 행사로는 11월 1일까지 최명희문학관과 공동주관하는 인문 체험 '함께하는 생생지락'과 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나의 삶 나의 이야기'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작품(시, 수필 등) 전시가 있다. 또 29일에는 '호남권 HK+연구단 지역인문학센터 좌담회'를 개최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은 21일 오전 2호관 양이홀에서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김재곤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대 본관과 2호관 리모델링 공사 완공 기념식을 가졌다.

전북대 치과대 본관·2호관 리모델링 개관

행정 효율성 증대, 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기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본관과 2호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1일 개관했다. 지난 5월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습실 등을 갖춘 3호관을 개관했던 전북대 치과대학은 이번 본관과 2호관이 연이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면서 행정 서비스와 학생 교육 경쟁력 향상을 모색해 왔다. 치과대학은 이날 오전 2호관 양이홀에서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김재곤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 기념식을 가졌다.

새로 문을 치대 본관은 지난 7월부터 천장 석면 교체사업을 시작으로 방난방기 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의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2호관(양이재)은 학생과 대학원생 전용 교육 공간과 도서관 시설로 개선했던 지난 5월 개관한 3호관과 함께 국내 최고의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추게 돼 매년 100%의 치과 의사시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전북대 치대 학생들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재곤 치과대학장은 "치과대학이

지역거점 대학을 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치과대학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새만금 지역 소부장 기업 기술교류·산학협력 포럼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20일 새만금 지역 소부장 기업 기술교류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배스트웨스턴군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호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호원대학교 가족회사 관계자 및 기업체 임직원, 군산시 관계자, 교수,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소부장 기업 기술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포럼은 임경채 교수(호원대 소부장R&D지원센터장)의 사회로 기업간 기술교류 및 소부장 관련 지원기관의 기술시세 발표, 지원정책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김민희 건설기계부품연구원장은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발전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남수 자동차융합기술원 본부장은 전북의 자동차산업 현황과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 전북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 등 기술의 현황과 미래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열전달 고분자 소재 개발

전북대학교 정광운 교수팀(고분자·노공학과)이 포피란계 반응성 액정분자를 이용해 가공성이 뛰어나면서도 우수한 열전도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열전달 고분자 소재를 개발했다.



정광운 교수 박민욱 박사

연구팀은 이를 간단한 광중합 방식(Photopolymerization)으로 제조할 수 있는 원천기술까지 확보해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화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영국왕립 화학회 '머티리얼즈 호라이즌스(Materials Horizons, IF=12.319, 상위 6.21%)' 10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정 교수팀은 기존에 상용되는 방열 고분자 소재보다 월등히 우수한 열전도성 고분자 필름을 제조했으며, 다양한 금속원소를 포피린

코어에 결합시켜 분자의 정렬구조에 따른 열전도 특성변화를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개발한 소재를 이용해 다양한 방열복합소재 응용분야에 적용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이번 연구는 정 교수팀 연구원인 박민욱 박사가 제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정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http://sunjeongch.nonghyup.com>

순창과 정음에 이니로!

순정축협

순정축협은 조합원 여러분의 편안한 생활과 나눔이 있는 뜻깊은 사회활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순정축신입업동조합 조합장 고창인